

의학도서관을 위한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Print Journal Preservation Model for the Medical Libraries in Korea

장혜란 (Hye Rhan Chang)**

김정아 (Jeong A Kim)***

초 록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의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와 사례를 통해 공동보존의 유형과 발전현황을 고찰하고,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인쇄본 학술지 폐기 실태와 공간현황 및 공동보존 요구도와 참여의지 및 선호방식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기존의 MEDLIS 인프라를 활용한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기본사항과 세부내용, 단계별 시행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노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llaborative print journal preservation model for the medical libraries in Korea. After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advanced preservation practices,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the members of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to collect data about the present states of journal weeding and storage space as well as their needs and preferences for collaborative preservation. Based on the analysis, a hybrid model, consisting of centralized and distributed archives, is proposed with MEDLIS as infra structure. Detailed characteristics and three phases of implement strategies are described. Finall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to the successful substantiation are suggested.

키워드: 의학도서관, 인쇄본 학술지, 폐기, 공동보존
medical libraries, print journals, weeding, collaborative preservation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hrhan@smu.ac.kr) (제1저자)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의학정보실(jeongakim@hanmail.net)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3년 8월 28일 ■ 최초심사일자: 2013년 9월 4일 ■ 게재확정일자: 2013년 9월 6일

■ 정보관리학회지, 30(3), 249-271, 2013.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3.249]

1. 서론

도서관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장서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장서는 서가공간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였으며, 도서관들은 인쇄본 장서의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공간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도서관 차원의 방안은 이용률이 낮은 자료를 서가로부터 제거하여 완전히 폐기하기 전까지 원거리의 2차적인 장소로 이관하여 일정기간 보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는 장서관리의 일환으로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확보된 공간은 새로운 장소로 대체되거나 새로운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장서를 가진 미국의 대학도서관들은(예, Yale, Cornell, Brown, John's Hopkins 등) 중앙캠퍼스 도서관에 대한 제로증가(zero growth)정책을 채택하였는데(Payne, 2007), 이것은 신규자료의 수집이 동일한 수량의 기존장서 폐기나 별치를 수반함을 뜻한다.

도서관들은 다른 한편으로 인쇄본 장서의 보관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여, 여러 도서관들이 협동으로 보관소를 마련하여, 원거리에 집중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관종별, 지역별, 국가별로 다양한 체제를 구축하여 자원을 공동활용하고 있다.

최신성이 중요시되는 학문의 특성상 학술지의 이용도가 높은 의학도서관들은 장서에서 학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상당수의 학술지들이 전자화되어 온라인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인쇄본 학술지의 구독비율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이용자의 요구 또는 구독유지 계약

조건에 의해 인쇄본 구독은 병행되고 있다.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기간호 학술지의 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쇄본 학술지의 보존은 의학도서관의 공간 부족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의학도서관 중에서도 특히 병원도서관은 모기관의 공간 압박이 심하므로 점점 더 많은 기관에서 학술지 폐기가 단행되고 있다. 학술지 폐기 문제를 인식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회원도서관에서 학술지 폐기대상을 결정할 때 의학학술지종합정보시스템(MEDLIS)에서 회귀본 또는 유일본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폐기에 대한 보고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보존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MEDLIS 종합목록을 보면, 소장기관수가 지극히 적거나 또는 유일소장인 학술지들이 있으며, 병원도서관들은 진료특화분야에 따라 수요가 적은 학술지들을 구독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이용자들의 기간호에 대한 의존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MEDLIS의 경우에 전자 아카이빙이 불완전한 2000년 이전 자료에 대한 원문신청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장혜란, 김정아, 2012), 기간호의 무분별한 폐기는 주요학술지의 단종 및 손실을 초래하거나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을 위한 의학도서관 상호협력의 필요성은 학술지 중복구독현상에도 나타나 있다. NDSL에 참여한 46개 의학도서관의 인쇄본 학술지 중복구독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황혜경 등, 2008), 전체 8,016종 중에서 약 73%가 중복되어 있으며, 동일학술지의

중복 수집기관 수의 범위가 최대 46개체에 이른다. 의학도서관들의 학술지 공동보존은 다른 관중에 비해 개별 도서관들의 공간확보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을 위한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 연구와 사례를 통해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의 유형과 발전현황을 고찰하고,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인쇄본 학술지 폐기 실태와 공간현황 및 공동보존에 대한 인식과 선호방식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실행가능한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의학도서관들의 공간문제를 해결하고 인쇄본 학술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공유를 증진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2. 인쇄본 공동보존의 유형과 발전현황

인쇄본 자료의 보관은 무엇보다도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외국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이 주제를 다루는 문헌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1990년대의 접근방법은 주로 고밀도 보관시설의 건축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Block, 2000). The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2010)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단행본 한권당 장서유지 비용은 전체주기 동안 개방형서고에 보존할 경우 \$141.89, 하이브리드 개방형에서 10년~20년 보존일 경우 \$50.98~

\$66.43, 고밀도 보존서고에서 보존할 경우 \$28.77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2007년의 조사를 보면 북미지역에 약 68개의 고밀도 보관시설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79%)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고, 도서관이 공동의 보관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21%에 해당하는 14개 보관소에 불과하였다(Payne, 2007).

그러나 개별 도서관의 소장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1990년대 중반 이전부터 미국 등지의 주요 도서관들을 중심으로 인쇄본 공동보존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인쇄본의 공동보존은 더 이상 도서관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발전하였다(Bridegam, 2004).

인쇄본 자료의 공동보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선행연구에 제시된 운영모델은 다음과 같다.

O'Connor 등(2002)은 공동보존의 모델을 설립형태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였다: 자료보관을 위해 대학내 기관들이 내부 혹은 외부에 보존서고를 설립하는 기관형보존소(institutional storage): 둘 이상의 도서관이 보관을 목적으로 공동설립하며 보관된 자료는 공유하지 않고 운영하는 단순 협력보존소(cooperative storage): 여러 도서관이 공동으로 장서운영정책, 복본정책, 소유권, 운영형태, 서비스정책을 공유하며 자료를 보존하는 동시에 회원도서관들에게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는 공동협력보존소(collaborative storage): 자료의 공동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저장공간의 최소화를 지향하면서 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특화된 장서 및 국가적인 보존자료를 관리하는 지역도서관센터(regional library centre): 국가도서관으로서 전국 도서관에서 보존을 희망하는 자

료의 위탁관리를 수행하는 리퍼지터리 도서관(repository library)이다.

Payne(2005)은 공동보존 체제를 3가지로 구분하였다: 단순 협력보존의 개념으로 공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보존시설을 건립하여 비교적 이용이 저조한 장서들을 별치하는 방법인 디퍼지터리(depository): 공동장서의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보존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정의, 관리주체, 영구적 접근을 보장하는 협약이 필요한 리퍼지터리(repository): 도서관들이 인쇄본 보존을 위한 도서관간, 보존시설간, 또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리퍼지터리 네트워크(repository network)이다. 리퍼지터리 네트워크의 형성은 2003년 CRL(Center for Research Libraries)에 의해 구축된 인쇄본 학술지 공동 레지스트리인 PAPR(Preservation America's Print Resources) 시스템으로 촉진되었다.

Demas & Lougee(2011)는 4가지로 공동보존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컨소시엄협의체나 대학기관들 중심으로 운영되며, 소유권은 대체로 자료를 기탁한 도서관에 있으나, 자료를 서비스하는 제3의 기관으로 이전되기도 하는 중앙집중형 아카이빙(centralized archiving): 보존환경을 갖춘 특정 도서관이 회원기관들을 위해 학술지를 보관하고, 충분한 수의 도서관이 학술지 보유에 동의하면, 나머지 도서관들은 공동자산에 대한 영구접근을 보장받아 자신의 복본을 폐기하는 방식인 분산형 아카이빙(distributed archiving):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을 모두 채택한 형태인 혼합형(hybrid model): 특정 분야의 국가적 자원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별 프로그램(discipline-based program)이다. 분산형

아카이빙에는 ASERL(Association of Southeastern Research Libraries)과 TRIN(Triangle Research Libraries Network) 등이 있고, 혼합형으로는 WEST(Western Regional Storage Trust)와 UKKR(United Kingdom Research Reserve)이 대표적이다. WEST는 미국 최대의 인쇄본 학술지 아카이빙 프로그램으로 기존 개별 도서관의 시설을 기반으로 구축하였는데, 참여도와 역할정도에 따라 아카이브 빌더(archive builder), 아카이브 홀더(archive holder), 아카이브 멤버(archive member)의 3단계로 나누어 보존등급별로 인쇄본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5개의 보존소가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UKKR는 저이용 인쇄본 학술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학술지당 3부를 보존하되 1부는 British Library에, 2부는 회원도서관에 보존한다. 분야별 프로그램으로는 CRL에서 추진한 2개의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 농학분야의 USAIN(United States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과 LLMC(Law Library Microform Consortium Collection)와 공동으로 추진한 법학분야의 프로그램이 있다.

최근 인쇄본 자료의 보관에 대한 접근방법이 크게 발전하였다. 단순한 공동 보관시설(shared storage)로부터 포괄적인 공동 아카이브(shared archival repository)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개념은 장서관리의 관점에서 인쇄본을 공동보존, 관리, 활용하는 것이다. 몇 가지 도서관 컨소시엄에서 인쇄본 학술지의 공동아카이빙을 발전시켰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1부 보존정책을 구현하며, 이것은 참여도서관들이 등록된 동일학술지에 대해 소유권을 공유하며, 자관의 복본을 보관시설로 보내

지 않고 폐기하는 동시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 영구적 접근을 보장받는다. 이 모델은 다소 모험적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시설투자가 필요없이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보존의 혜택을 최대로 향유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보존하는 부수는 컨소시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자료를 한 곳에 보관하는 집중형이 아닌 분산형 또는 계층적 분산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에서는 상당량의 장서가 폐기될 수 있으므로 공간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Northeastern Ohio Cooperative Regional Library Depository에서는 2006년에 복본폐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는데, 시설에 있는 7,000종의 정기간행물 중 280종을 리부하여 6,000권을 폐기하였고(Payne, 2007), WEST에서는 2009-2010 기획단계에서 8,000종을 선정함에 따라 회원도서관의 중복소장 1,000,000권이 폐기되었다(CDL, 2011).

〈표 1〉은 단순협력보존소를 제외한 주요 인쇄본 공동보존 체제의 특성과 정기간행물 정책 및 서비스를 요약한 것이다.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인쇄본 보존 프로그램은 시, 주, 지역단위의 체제가 많은데 비해, 유럽은 국가단위의 체제가 지배적이다. 복본정책에 있어서는 1부 보존정책을 고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관자료의 소유권에 있어서는 다수의 시설이 동일 기탁자료에 대해 공동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방식에 있어서는 국립기관을 제외하고 차등 또는 균등의 형태로 참여도서관이 공동부담하고 있다. 미국서부와 동부지역을 포괄하는 WEST나 WRLC와 ASERL의 공동협약에서 볼 수 있듯

이 보존체제가 점차 광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쇄본 장서의 폐기와 공동보존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강미희(2003)는 장서량이 많은 190개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특수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폐기와 공간실태, 공동보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조옥수(2003)는 대구경북지역 5개 국립대학도서관들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중앙집중방식의 보존도서관을 제시하였다. 홍현진 등(2003)은 KISTI를 중심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정보환경의 국가과학기술문헌센터의 건립을 제안하면서, 자료 발행연도에 따라 단계별로 자료를 이관하고, 관리운영권은 KISTI가 가지고 소유권은 회원도서관과 KISTI가 공유하는 보존방안을 제시하였다. 강현민(2006)은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이용하여 단위도서관 공동주체가 되는 지역보존도서관, 국가보존도서관의 계층적 모델을 제시하였고, 강미희(2008)는 후속연구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가 운영주체가 되어 공동보존도서관이 관리권을 가지고, 소유권은 참여도서관과 공유하는 국가보존도서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광동철 등(2007)은 미국의 주요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및 운영특성을 서술하고 발전현황을 고찰하였으며, 윤정옥 등(2007)은 외국의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시설, 운영방안, 규모, 소유권, 이용과 서비스, 시스템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쇄본 공동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 서술한 국내 연구들이 인쇄본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보다 최근에는 인쇄본 정기간행물 보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

〈표 1〉 주요 인쇄본 공동보존 체제의 특성과 정기간행물 정책 및 서비스

명칭 (소재국/설립연도)	참여기관의 유형과 수	보존정기간행물 선정	정기간행물 부분정책	소유권	이용서비스	재정지원방식	범위	운영모델	비고
WRIC 미국 1987년	워싱턴D.C. 9개대학교도서관	개별도서관에서 1차 선정, 선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	1부 보존	기탁자료에 대한 공동소유	- 권소시업 외부에도 원문제공서비스 - 원문제공서비스	회원도서관의 연회비로 운영	시단위	집중형	2013년 1월 ASERL과 협력계약 체결 (Scholars Trust)로 발주
PASCAL 미국 2001년	콜로라도와 덴버대학 4개 도서관	개별도서관 선정	1부 보존	기탁자료에 대한 공동소유	- 원문제공서비스 (24시간 사전 이용에 약)	장서비율에 따라 차등부담	지역단위	집중형	-
WEST 미국 2011년	미국서부, 동부 지역의 103개 연구 및 대학도서관	산별감수위원회에서 이커이빙등급 선정	PAPR를 통해 등급별 관리	선정된 학술지를 보존, 관리하는 Archive Holder 소유	- 원문제공서비스	엔드류멜론재단 지원금과 연회비 (장서 및 프로그램 기여도에 따라 차등부담)	지역단위	혼합형	- 정기간행물 보존전용 - 북미최대의 공동협의체 - 5개의 저장시설 및 별도서관보존
ASERL 미국 2011년	미국남동부연구도서관협의회(ASERL) 회원중 24개 도서관	개별도서관 선정	참여도서관에 부분보유 계량관 부여	기탁자료에 대한 공동소유	- 원문제공서비스	참여한 도서관이 부담	지역단위	분산형	- 정기간행물 보존전용 - 2013년 1월 WRIC와 협력계약 체결 (Scholars Trust)로 발주
UKRR 영국 2007년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29개의 영국대학교도서관, 3개의 스코틀랜드 대학도서관	BL이 핵심적 역할 수행	3부 보존 (BL에서 1부, 2부는 회원도서관 보존)	기탁자료에 대한 공동소유	BL을 통한 원문제공서비스	정부지원금	전국단위	혼합형	- 정기간행물 보존전용 - 영국국립도서관과 참여도서관에 보존
CASS 영국 2004년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 스코틀랜드대학 및 연구도서관협의회(SCURL) 6개 대학 도서관	개별도서관 선정	1부 보존	기탁자료에 대한 공동소유	- 원문제공서비스 - 열람가능	카네기멜론 재단 지원금과 5년간 위 고정회비	지역단위	집중형	보존된 1부를 The Scottish Copy라 칭함
The Finnish NRL 핀란드 1989년	국립보존도서관 관중을 비롯한 핀란드내 도서관	개별도서관 선정	2부 보존: 핀란드 내 도서관에도 1부 소장- second copy repository 지칭	NRL	스카너나비와 유린전역에 원문제공서비스	핀란드 교육부 지원	전국단위	집중형	-
The CTLes 프랑스 1994년	국가차원의 보존도서관 대학 및 고등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개별도서관 선정	1부 보존	소유권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정	원문제공서비스	프랑스 교육과학 연구기술투자 지원	전국단위	집중형	주도 역사와 과학분야자료 보존
CARM Center 호주 1997년	빅토리아주 10개 대학도서관	개별도서관 선정	1부 보존	CARM Center (양도가 불가능한 기관은 장기대출 형태)	- 원문제공서비스 - 열람가능	차등부담	지역단위	집중형	-
JURA 중국 2014년 예정	홍콩의 8개 대학도서관	개별도서관 선정	1부 보존	기탁자료에 대한 공동소유	원문제공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역단위	집중형	- 2002년 TFT구성

다. 박승진 등(2013)은 KESLI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면담을 수행하여 대다수의 기관이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국내 실정에 맞는 인쇄학술지 공동보존센터 구축을 위해 협의체 구성방안, 기탁학술지의 소유권, 보존대상 인쇄학술지 범위 및 보존센터 유형을 제시하였다. 윤은하, 장윤금(2013)은 인쇄본 저널 아카이빙 관리전략에 대해 미국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쇄본 공동보존협약인 WEST프로젝트 사례를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정기간행물 관리방안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는데, 첫 번째는 학술지 소장공간과 폐기 실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학술지 공동보존에 대한 인식, 참여의지, 공동보존소 운영에 대한 것이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따라 하위문항과 복수선택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내용과 문항구성은 <표 2>와 같다. 폐기시행 여부에 따라 폐기회수, 폐기량, 폐기사유, 폐기대상 선정시 고려요인에 대한 문항이 제시되었고, 자료공간상태, 특별 보존대상자료 유무, 참여의사, 1부 보존정책에 대한 의견에 따라 하부문항이 제시되었다. 질문유형은 내용에 따라 5점 또는 3점 척도, 빈도를 직접 기입하는 단답형, 선택형 등이 있으며, 선택형에는 복수선택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조사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5월 현재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163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 중에서 회원현황을 기준으로, 사서가 근무하고 있지 않거나 회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8개 기관을 제외한, 155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각 기관의 정기간행물 담당자를 파악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1-2인 체제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관은 각 담당사서에게 발송하였다.

3.2 측정도구의 설계

설문지의 내용은 2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

3.3 데이터 수집절차

설문조사는 2013년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수행되었고, 69.7%에 해당하는 108개 기관에서 회신이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한 응답이 없었으므로 108부가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3.4 분석방법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에 대한 기초통계량과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 기술적 통계를 중심으로 요약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카이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요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2〉 설문지 내용과 문항구성

구분	세부내용	문항수
장서공간, 폐기실태	유형 인쇄본으로 구독중인 외국학술지 종수 제본하여 소장중인 학술지량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수 자료소장공간 상태 - 소장공간 부족사태 대두 예상시기 특별히 보존해야 할 자료 유무 - 자료의 성격 최근 5년간 학술지 폐기시행 유무 폐기시행 회수 최근 5년 학술지 폐기량 학술지 폐기사유 폐기대상 학술지 선정시 고려했던 요인	11
학술지공동보존에 대한 인식, 참여의지, 운영방안	학술지 공동보존대책의 필요성 기증방식의 참여의사 -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 기탁방식의 참여의사 -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 1부 보존정책에 대한 의견 - 소유권에 대한 정책 자료기탁 도서관과 공동보존소 간의 협의사항 영구적온라인접근이 가능한 인쇄본의 보존여부 - 보존해야 하는 이유 공동보존소 운영형태 공동보존소 운영주체 공동보존소 운영비용	9
계		20

4. 분석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108개 기관의 관종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조사대상 53개 대학도서관 가운데 66.0%인 35개 기관이, 조사대상 102개 병원 및 연구소 도서관 가운데 71.6%인 73개 기관이 설문에 참여하여, 관종별 의견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체 회신 기관에 대한 관종별 분포는 대학도서관 32.4%, 병원 및 연구소도서관이 67.6%이다.

4.1 학술지 구독 및 소장현황

설문에 응답한 108개 기관의 학술지 구독 및 소장현황은 〈표 4〉와 같다. 인쇄본으로 구독중인 외국학술지 종수는 50종 미만을 구독하는 기관이 75.9%(82개 기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종~199종을 구독하고 있는 기관이 14.0%(15개 기관), 200종 이상을 구독하는 기관이 10.1%(11개 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가능한 전자저널 DB수는 1~10종을 구

〈표 3〉 응답기관의 관종별 분포

구분	회원기관수	조사대상 기관수	응답기관수(비율 %)	응답률(%)
대학도서관	54	53	35 (32.4)	66.0
병원 및 연구소 도서관	109	102	73 (67.6)	71.6
계	163	155	108(100.0)	69.7

〈표 4〉 학술지 구독 및 제본학술지 소장현황

구분	대학도서관	병원 및 연구소도서관	계(%)	
인쇄본으로 구독중인 외국학술지종수	50종 미만	16(14.8)	66(61.1)	82 (75.9)
	50~199종	9 (8.4)	6 (5.6)	15 (14.0)
	200종 이상	10 (9.2)	1 (0.9)	11 (10.1)
계	35(32.4)	73(67.6)	108(100.0)	
이용 가능한 전자저널DB수	1~10종	13(12.0)	45(41.7)	58 (53.7)
	11~20종	3 (2.8)	10 (9.2)	13 (12.0)
	20종 이상	19(17.6)	18(16.7)	37 (34.3)
계	35(32.4)	73(67.6)	108(100.0)	
소장중인 제본학술지권수	1,000권 이하	4 (3.7)	30(27.8)	34 (31.5)
	1,001~10,000권	10 (9.3)	24(22.2)	34 (31.5)
	10,001~20,000권	3 (2.8)	15(13.9)	18 (16.7)
	20,001~40,000권	6 (5.5)	3 (2.8)	9 (8.3)
	40,001권 이상	12(11.1)	1 (0.9)	13 (12.0)
계	35(32.4)	73(67.6)	108(100.0)	

독하는 기관이 53.7%(58개 기관), 11종~20종을 구독하는 기관이 12.0%(13개 기관), 20종 이상을 구독하고 있는 기관이 34.3%(37개 기관)에 해당하여, 응답한 108개 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1~10종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중인 제본학술지 권수는 단답형으로 응답을 받아 그 범위를 5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1,000권 이하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1,000권 초과 10,000권 이하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각각 31.5%(34개 기관)로 높게 나타났으며, 20,000권을 초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대학도서관 18개 기관과 병원 및 연구소도서관 4개 기관이었다.

4.2 소장공간 및 학술지폐기 실태

4.2.1 소장공간 현황

소장공간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전혀 여유가 없다” 또는 “여유가 없다”에 응답한 기관이 64.8%(70개 기관)로 나타났다으며, 여유가 있는 기관은 13.9%(15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X²검정결과, 소장공간 현황에 대해 관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5$).

공간에 여유가 있는 기관을 제외한 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장공간의 부족사태 대두시기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89.2%에 해당하

〈표 5〉 소장공간 현황

구분	대학도서관	병원 및 연구소도서관	계(%)	통계량(X^2)	유의확률
전혀 여유가 없다	2 (1.9)	21(19.4)	23 (21.3)	13.218	.010**
여유가 없다	21(19.4)	26(24.1)	47 (43.5)		
그저 그렇다	10 (9.3)	13(12.0)	23 (21.3)		
여유가 있다	2 (1.9)	10 (9.3)	12 (11.1)		
매우 여유가 있다	0 (0.0)	3 (2.8)	3 (2.8)		
계	35(32.4)	73(67.6)	108(100.0)		

* p<0.05, **p<0.01

〈표 6〉 소장공간 부족문제 대두시기

구분	대학도서관	병원 및 연구소도서관	계(%)	누적비율
1년 이내	2 (2.2)	26(28.0)	28 (30.1)	28 (30.1)
2년 이내	12(12.9)	14(15.1)	26 (28.0)	54 (58.1)
3년 이내	12(12.9)	13(14.0)	25 (26.9)	79 (85.0)
4년 이내	2 (2.1)	2 (2.1)	4 (4.2)	83 (89.2)
5년 이후	5 (5.4)	5 (5.4)	10 (10.8)	93(100.0)
계	33(35.5)	60(64.5)	93(100.0)	93(100.0)

는 83개 기관이 4년 이내에 소장공간 부족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 응답기관의 76.9%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KESLI 회원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곽승진 등(2013)의 연구에 나타난 56%를 크게 상회한다. 의학도서관들의 공간부족 문제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4.2.2 학술지 폐기실태

최근 5년 동안의 학술지 폐기시행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응답기관의 38.9%에 해당하는 42개 기관이 2회 이상 폐기를 시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40개 기관이 병원 및 연구소도서관, 대학도서관은 단 2기관으로 나타났다. X^2 검정결과 폐기시행 유무에 대하여 관중별 및 공간상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폐기를 시행한 기관을 대상으로 폐기빈도를 조사한 결과가 〈표 8〉에 나타나 있다. 병원 및 연구소도서관에서 폐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5개 기관은 연1회 이상 폐기를 하고 있다. 학술지 폐기량을 조사하는 단답형 문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기관이 많아 평균 폐기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인쇄본 구독분이 있음에도 제본학술지를 전혀 소장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14개 기관(병원 및 연구소도서관 13개, 대학도서관 1개), 100권 미만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19개 기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일소장본을 제외하고 소장학술지를 전량 폐기했거나 제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개별 도서관들의 학술지보존이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최근 5년 학술지 폐기시행여부 분석

구분		응답기관수(%)		계	통계량(X^2)	유의확률
		있다	없다			
관종별	대학	2 (1.9)	33(30.6)	35(32.4)	23.979	.0000**
	병원 및 연구소	40(37.0)	33(30.6)	73(67.6)		
공간 상태	전혀 여유가 없다	15(13.9)	8 (7.4)	23(21.3)	9.896	.042*
	여유가 없다	17(15.7)	30(27.8)	47(43.5)		
	그저 그렇다	5 (4.6)	18(16.7)	23(21.3)		
	여유가 있다	4 (3.7)	8 (7.4)	12(11.1)		
	매우 여유가 있다	1 (0.9)	2 (1.9)	3 (2.8)		
계		42(38.9)	66(61.1)	108(100.0)		

* p<0.05, **p<0.01

〈표 8〉 최근 5년동안 학술지 폐기빈도

구분	대학도서관	병원 및 연구소도서관	계(%)
1-2회	1	29	30 (71.4)
3-4회	0	7	7 (16.7)
5회 이상	1	4	5 (11.9)
계	2	40	42(100.0)

〈표 9〉 학술지 폐기사유

구분	응답기관수	백분율(%)
서가공간 확보	32	40.5
공간축소에 대한 모기관의 압박	20	25.3
온라인구독으로의 전환	18	22.8
장서의 품질 향상	3	3.8
기타	6	7.6
계	79	100.0

(복수 응답)

최근 5년동안 1회 이상 폐기를 시행한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술지 폐기사유에 대한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79건의 복수응답을 받았는데, 학술지를 폐기한 가장 큰 이유는 '서가공간 확보'가 40%(32개 기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공간축소에 대한 모기관의 압박, 온라인구독으로의 전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폐기사유로 복본정리와 이용자 공간확보를 목적으로 폐기를 시행하였다고 각각 3개 기관이 답하였다.

폐기대상 선정시 고려요인에 대해서는 복수로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용빈도"와 "전자저널 이용가능"에 대한 비중이 각각 2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원문제공서

〈표 10〉 특별보존대상 자료유무와 성격

구분	자료의 성격(기관수)	응답기관수	백분율(%)
있다	유일본 및 회귀본(26)	35	32.4
	특화된 주제분야(5)		
	기관내 특수한 사정(4)		
없다	-	73	67.6
계	-	108	100.0

비스 이용가능”이 17.7%, “출판 후 경과된 시간”이 14.9%, “기증자료”가 9.2%, “부분결호 또는 망실”이 6.4%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별히 보존하여야 할 학술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표 10〉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기관 전체의 32.4%(35개 기관)가 보존대상 자료가 있다고 답하였는데 국내 유일본 및 회귀본을 소장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26개 기관, 자관의 특화된 주제분야에 대해서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5개 기관, 기타 “이용자의 요청” 등 기관내 특수한 사정으로 보존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4개 기관 등이다.

4.3 학술지공동보존 수요도 및 참여의사

4.3.1 학술지 공동보존 수요도

학술지 공동보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분석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응답기관의 79.6%(86개 기관)가 학술지 공동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기관은 17.6%(19개 기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관은 2.8%(3개 기관)에 그쳤다. 공동보존 수요도에 대하여 최근 5년 폐기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폐기경험이 많은 기관이 공동보존에 대한 수요가 높다.

4.3.2 학술지 공동보존 참여의사

학술지 공동보존 참여의사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기증(donation) 방식과 법적소유권의 이전없이 관리를 맡기는 기탁(deposit)방식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가 〈표 12〉에 나타나 있다. 조사결과, 두가지 방식 모두 71.3%(77개 기관)의 기관이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폐기여부에 따른 공동보존 수요 차이분석

구분	응답기관수(%)			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유의확률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최근 5년 폐기시행 여부	있다	37(34.3)	5 (4.6)	0(0.0)	42(38.9)	2.88	.33	t=2.167	.032*
	없다	49(45.3)	14(13.0)	3(2.8)	66(61.1)	2.70	.55		
계		86(79.6)	19(17.6)	3(2.8)		108(100.0)			

* p<0.05

〈표 12〉 학술지 공동보존 참여의사

구분	기증참여의사		기탁참여의사	
	응답기관수	백분율(%)	응답기관수	백분율(%)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5	4.6	3	2.8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참여하겠다	72	66.7	74	68.5
참여하지 않겠다	31	28.7	31	28.7
계	108	100.0	108	100.0

〈표 13〉 기증 및 기탁에 대한 불참 이유

구분	기증불참여이유		기탁불참여이유	
	응답기관수	백분율(%)	응답기관수	백분율(%)
공동보존소로 이관할만큼 장서가 많지 않다	19	26.8	19	26.8
모기관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	15	21.1	15	21.1
각종 평가에 대비한 장서량의 감소가 우려스럽다	12	16.9	11	15.5
운영비용의 지출이 부담스럽다	11	15.5	11	15.5
기증자료에 대한 이용자 요청이 우려스럽다	9	12.7	9	12.7
기타	5	7.0	6	8.4
계	71	100.0	71	100.0

(복수응답)

기증과 기탁에 참여의사가 없는 기관이 모두 31개이며 동일한 기관으로 판명되었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불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31개 기관으로부터 71건의 복수응답을 받았는데, 기증과 기탁 양쪽에서 모두 ‘공동보존소로 이관할만큼 장서가 많지 않다’와 ‘모기관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공동보존에 대한 수요도와 별개로 각 기관의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공동보존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참여결정에 있어서는 적은 장서량과 모기관의 승인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사한 비율로 평가에 대비한 장서량 감소의 문제와 운영비용 부담의 문제가 공동보존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식별되었다.

4.4 공동보존소 운영방안

4.4.1 공동보존소 운영방식

공동보존소 운영에 관한 형태, 주체, 비용에 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합리적인 공동보존소의 운영형태를 묻는 문항에 58.3%(63개 기관)가 대표도서관 또는 한의도협이 주도가 되는 중앙집중형이라고 응답하였고, 참여희망기관간 컨소시엄 형태가 합리적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21.3%(23개 기관), 지역별 대표도서관 선정을 통한 분산형에 응답한 기관은 17.6%(19개 기관)로 나타났다. 기타에 응답한 3기관 가운데 2개 기관은 집중형과 분산형이 절충된 형태가 합리적이라고 답하였고, 나머지 1기관은 국가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하였다.

〈표 14〉 공동보존소 운영방식에 대한 분석결과

구분		응답기관수	백분율(%)
운영형태	중앙집중형(대표도서관 또는 한의도협)	63	58.3
	컨소시엄형태(참여기관간 협력)	23	21.3
	분산형(지역별 대표도서관)	19	17.6
	기타	3	2.8
계		108	100.0
운영주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55	50.9
	참여도서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협의체	28	25.9
	대표도서관 선정	20	18.6
	기타	5	4.6
계		108	100.0
운영비용	참여도서관의 차등부담	43	39.8
	참여도서관과 비참여 도서관의 차등부담	26	24.1
	전체 의학도서관의 균등부담	19	17.6
	참여도서관의 균등부담	11	10.2
	기타	9	8.3
계		108	100.0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50.9% (55개 기관)로 가장 많았고,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협의체, 대표도서관이 각각 21.3% (28개 기관)와 17.6%(20개 기관)로 나타났다.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역시 기타에 답한 5개 기관 가운데 3개 기관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2개 기관은 국가와 지역대표 또는 국가와 한의도협, 컨소시엄협의체의 혼합형을 언급하였다.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참여도서관의 차등부담이 39.8%(43개 기관), 참여도서관과 비참여 도서관의 차등부담이 24.1%(26개 기관), 그리고 전체 의학도서관의 균등부담이 17.6%(19개 기관), 참여도서관의 균등부담이 10.2%(11개 기관)로 나타났다. 8.3%의 기타의견으로 국가 부담이 7개 기관, 한의도협이 1개 기관, 개별기

관의 비용부담은 부담스럽다고 답한 기관이 1개 기관이었다.

4.4.2 인쇄본 복본보존 정책

외국의 학술지 공동보존 사례를 보면, 대다수의 보존기관이 학술지에 대해 1부 보존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72.2%(78개 기관)의 기관이 1부 보존보다는 분실 및 망실에 대비한 2부 이상 보존이 합리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영구적으로 온라인 이용이 가능한 학술지의 인쇄본 보존여부에 대해서는 60.2%(65개 기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DB사의 정책변경이 우려스럽다고 응답한 기관이 56.9%(37개 기관)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의학학술지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서”에 응답한 기관이 21.5%(14개 기관), “온

〈표 15〉 복본 보존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기관수	백분율(%)
1부 보존이 합리적	25	23.1
분실 및 망실에 대비하여 2부 이상 보존이 합리적	78	72.2
이관된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함	5	4.6
계	108	100.0

라인자원은 소장이 아닌 접근이 불과하므로”에 응답한 기관이 13.9%(9개 기관),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장서량을 확보하기 위하여”에 응답한 기관이 7.7%(5개 기관)로 나타났다.

4.4.3 공동보존자료의 소유권 및 합의사항

1부 또는 2부 이상 보존해야 한다고 응답한 1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관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공동보존소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도서관과 병원 및 연구도서관이 각각 25%와 21.1%로 회의적이었고, 대학도서관은 동일자료에 대해서 기탁한 도서관들이 공동소유하는 것을 선호하였고(43.8%), 병원 및 연구소도서관은 도서관과 공동보존소간의 양도협약에 따른다고 응답한 기관이 42.3%로 가장 많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동일자료에 대해서 기탁한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기관(38.8%)과 도서관과 공동보존소간 소유권 양도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응답한 기관

(38.8%)이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나, 참여도서관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소유권의 보장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동보존소와 공동보존 참여도서관이 소유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강미희(2008), 박승진 등(2013)의 연구와, 참여도서관의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신지연 등(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공동보존 참여도서관들이 기탁자료에 대한 소유권의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고 응답한 5개 기관 가운데서는 3개 기관이 원 소유기관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개 기관은 기탁한 도서관과 공동보존소가 공동소유권을 가져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공동보존소와 기탁도서관 간의 합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복수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전체 기관에서 426건의 응답을 받았는데, 소유권을 기재한 기탁서의 발행 20.2%, 보존소 목록레코드에 기탁기관의 표기 18.6%, 그리고 기탁자료의 처분에 대한 권한 17.6%였다. 이어

〈표 16〉 기탁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의견

구분	대학도서관	병원 및 연구소 도서관	계(%)
동일자료에 대해서 기탁한 도서관들의 공동소유	14 (43.8)	26 (36.6)	40 (38.8)
기탁한 도서관과 공동보존소간 소유권 양도협약에 따름	10 (31.2)	30 (42.3)	40 (38.8)
공동보존소에 소유권 양도	8 (25.0)	15 (21.1)	23 (22.3)
계	32(100.0)	71(100.0)	103(100.0)

서 기탁기관에 대한 자료이용권한 특화, 기탁자료의 보존연한 설정, 반환요청 권한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4.4.4 공동보존소 운영에 관한 기타의견

공동보존소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의견을 묻는 자유응답 문항에서 108개 응답기관 중 23개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유응답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7개 기관이 비용부담의 문제와 국가지원의 문제를 언급하였고, 3개 기관이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의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인쇄본 보존의 불필요성,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기능확장, 기증방식 이관의 합리성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5. 의학도서관 인쇄본학술지 공동보존모형(안)

이상과 같이 의학도서관의 학술지 폐기실태

및 학술지 공동보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장 공간에 여유가 있는 기관은 13.9%에 불과하며, 문제는 병원 및 연구소 도서관이 더욱 심각하고, 전체의 38.9%가 최근 5년 이내에 폐기경험이 있고, 32.4%가 특별히 보존해야 할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79.6%의 기관이 공동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71.3%가 공동프로그램에 참여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와 선행 연구 및 운영사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의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모형(안)을 도출하였다.

5.1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의 기본사항

의학도서관의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에 대한 기본사항을 종합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조사결과 공동보존에 참여의사가 없는 31개 기관을 제외한 77개 기관(71.3%)의 참여가 예상된다. 운영주체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1968년 창

<표 17> 의학도서관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에 대한 기본사항

구분	기본사항
예상참여기관수	77개 기관
운영주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한의도협)
보존자료의 선정	기증: 개별도서관 기탁: 공동보존위원회
복본정책	2부 이상 보존
소유권	기증: 한의도협, 기탁: 학술지별 기탁도서관 공동소유
제공서비스	MEDLIS를 통한 원문제공서비스
재정지원방식	기증자료 보존: 한의도협 부담 기탁자료 보존: 보존기관 부담
운영모델	하이브리드(기증: 집중형, 기탁: 분산형)
범위	전국적

립한 이래로 자원공유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2008년에 개발된 MEDLIS(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은 의학도서관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원문제공서비스시스템이다. 2011년에 보완된 인터페이스는 소장정보의 신규입력 및 수정이 간편하며, 스캔이미지의 원문을 시스템상에서 출력하여 당일제공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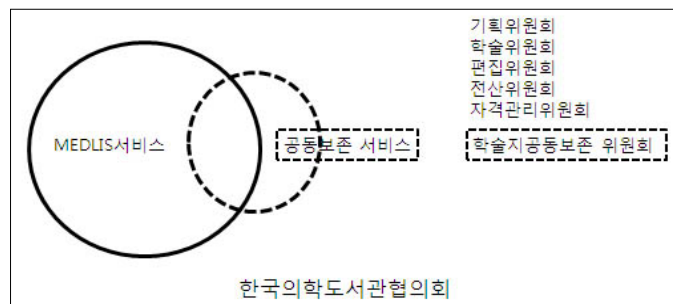
선진 운영사례에서 보면, 운영모델은 별도의 보존시설을 필요로 하는 집중형에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분산형 또는 혼합형의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공간 압박으로 인한 폐기자료의 체계적 보존이 시급하므로, 기증자료는 선별하여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탁자료는 동협회(가칭)공동보존위원회의 규제에 따라 참여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소유, 관리, 보관하는 분산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예산을 최소화하고, 공동보존과 기존의 MEDLIS가 동질의 원문제공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도서관장서는 선진국에 비해 빈약하며, 특히 다수의 지역별체제가 존재하는 미국의 정보환경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1부 보존은 적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도 응

답기관의 72.2%가 2부 이상 보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자료 보존에 대한 비용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기탁자료 보존에 대한 비용은 참여도서관들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2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 모형

위와 같은 기본사항을 토대로 의학도서관 인쇄본 공동보존을 위한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을 위해 추가될 서비스와 기구이다. 현재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산하에는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전산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당 협의회 산하에 인쇄본 학술지의 공동보존을 전담할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보존대상자료 선정, 보존책임도서관 선정, 보존협약 내용과 절차 결정, 서비스제공 표준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공동보존자료에 대한 서비스는 으로 표현된 부분해서 유지하게 됨으로써, 공동보존과 인쇄본학술지 원문제공서비스 전체가 현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운영범위 안에서 구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 모형

5.3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 단계별 추진전략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의 단계별 계획과 필수 준비사항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기증의 형태로 자료를 이관받는 시행 1단계는 집중형 모델로 지속되고, 기탁방식의 공동보존과 폐기가 시행되는 2단계는 집중형과 분산형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형(혼합형)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국내의 다른 컨소시엄과 연동운영되는 네트워크의 협력단계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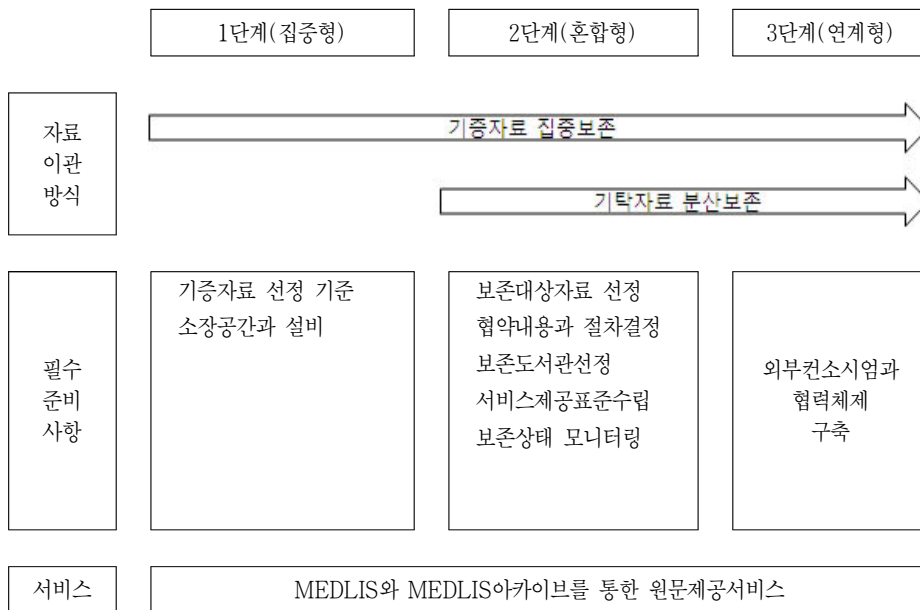
5.3.1 시행 1단계(집중형)

조사결과에 따르면, 1년 이내에 공간문제에 직면할 도서관이 30%에 이른다. 분산 공동보존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소규모도서관들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폐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2단계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이 정립될 때까지 자료의 손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협회에서 기증방식의 이관을 시행함으로써 자료의 공동보존과 활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증은,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이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자료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마련하여 일괄 보존하고, 종합목록의 소장정보를 수정하며, 인력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문제공은 해당자료가 유일본인 경우에만 협회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5.3.2 시행 2단계(혼합형)

2단계에서 학술지공동보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 이전에 확립되어야 할 필수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 시행단계

첫째, 보존대상이 선정되어야 한다. 우선적 대상인 유일소장본과 희귀본 외에, 저이용자료, 중복소장이 많은 자료, 출판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자료, 공간점유율이 높은 자료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궁극적으로 보존용 학술지명과 기간이 결정되어야 한다. 보존학술지로 등록이 되면, 개별도서관은 해당자료를 폐기할 것인지, 공동보존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소장할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보존협약의 내용과 절차가 결정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의학도서관들은 협의사항 중에서 소유권의 보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동일자료에 대해서 기탁도서관들이 공동소유권을 갖고, 기탁자료에 대해 각종 통계에서 장서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학도서관 평가 및 병원협회의 신입평가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도서관장서에 대한 개념이 소유하는 1차적 장서와 필요시 접근하는 2차적장서로 구성되는 것은 이미 오래된 개념이다. 미국의 ARL이나 ACRL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기간 및 해약에 관한 사항도 필요하다.

셋째, 안정적인 보존시설을 갖춘 자료별 보존도서관의 선정이다. 보존자료가 선정되면 협약에 따라 해당자료를 보존하고 서비스할 도서관이 설정되어야 한다. 책임이 일부도서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와 보존자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동보존 참여도서관의 제공서비스 표준과 보존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3.3 시행 3단계(연계형)

3단계는 협력네트워크의 단계이다. 최근 들어 인

쇄본 공동보존의 발전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분산화와 더불어 지역적 광역화와 컨소시엄 간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외국의 사례에 나타났듯이 범위를 확대하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될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인쇄본공동보존 체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는 없으나, 의학학술지인쇄본 보존체제가 확립되고, 그밖에 다수의 관중별, 지역적, 전국적, 협의체가 생겨난다면, 이와 같은 협력네트워크의 실현이 국가적 학술자원 보존과 공유의 효용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인쇄본 의학학술지 보존과 의학도서관의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의학 학술지 공동보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와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도서관을 대상으로 학술지 폐기 실태와 공간현황 및 인쇄본 공동보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공동보존 체제의 기본사항을 정리하고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기존 MEDLIS 인프라를 활용하는 실현가능한 모형(안)을 도출하였다. 모형은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기증과 기탁 그리고 협력네트워크의 3단계의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은 의학도서관계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다. 기증자료의 수집과 관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기탁자료의 분산 보존은 참여도서관들의 일반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과 절차의 수립이 선

행되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시키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협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빠른 시일 안에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기획위원회 안에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을 위한 작업집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학술지공동보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과 책임을 정의하고 동협회 산하에 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학술지공동보존위원회가 설치되면, 시행 1단계를 실행에 옮기고, 시행 2단계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면, 의학 학술지종합정보시스템(MEDLIS)에는 의학 학술지종합목록과 원문제공서비스 외에 공동보존자료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통합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완전성, 정확성, 최신성 등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존학술지의 보관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공적인 학술지 보존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대규모 의학도서관뿐만 아니라 소규모 병원도서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보존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비용부담, 분산보존 자료에 대한 개별도서관 장서로서의 인정, 모기관의 폐기 승인 문제를 계획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기증과 기탁을 통한 공동보존의 필요성과 혜택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세미나 등을 이용한 심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의사가 없는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 전체의 협조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희 (2003). 국내 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폐기실태와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강미희 (2008). 국내 도서관 공간포화 원인과 공동보존 전략 - 국가보존도서관 설립을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12, 67-88.
- 강현민 (2006).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29-53.
- 곽동철, 심경, 윤정옥 (2007). 해외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51-78.
- 곽승진, 최재황, 김정택, 박옥남, 김환민 (2013).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337-357.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337>
- 신지연, 김유승 (2011).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129-150.

- 윤은하, 장윤금 (2013). 디지털 시대의 인쇄본저널의 보존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267-291.
- 윤정옥, 심경, 광동철 (2007).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25-51.
- 장혜란, 김정아 (2012) 의학학술지종합정보시스템(MEDLIS)의 원문제공서비스 이용 분석과 평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233-250.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233>
- 조옥수 (2003).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대구 경북지역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홍현진, 정준민, 강미희, 정대근 (2003). 국가과학기술문헌센터 건립 최적화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2), 285-318.
- 황혜경, 김순영, 이혜진 (2008). 협력형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학술지 중복 연구. *정보관리연구*, 39(2), 131-161. <http://dx.doi.org/10.1633/JIM.2008.39.2.131>
- ASERL (Association of Southeastern Research Libraries) Cooperative Journal Retention Program). Retrieved from <http://www.aserl.org/programs/j-retain/>
- Block, D. (2000). Remote storage in research libraries: A microhistory.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44(4), 184-189. <http://dx.doi.org/10.1108/07378830210444469>
- Bridegam, W. E. (2004). Print preservation at the local level: The five college experience.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28, 29-38.
- California Digital Library (2011). WEST: The Western Regional Storage Trust-An implementation proposal. Retrieved from <http://www.cdlib.org/services/west/docs/WESTImplementationProposalPublic.pdf>
- CARM Center. Retrieved from <http://www.caval.edu.au/carm.html>
- CASS (Collaborative Academic Store for Scotland). Retrieved from <http://cass.nls.uk/>
-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2010). The idea of order: Transforming research collections for 21st century scholarship. Retrieved from <http://www.clir.org/pubs/reports/pub147/reports/pub147/pub147.pdf>
- CRLee (The Centre Technique du Liv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Retrieved from <http://www.ctles.fr/>
- Demas, S., & Lougee, W. (2011). Shaping a national collective collection: Will your campus participate? *Library Issues*, 31(6), 1-4. Retrieved from <http://www.libraryissues.com/sub/PDF3106Jul2011.pdf>
- JURA (The Joint Universities Research Archive). Retrieved from <http://www.julac.org/>
- O'Connor, S., Wells, A., & Collier, M. (2002). A study of collaborative storage of library resources. *Library Hi Tech*, 20(3), 258-269. <http://dx.doi.org/10.1108/07378830210444469>

- PASCAL (Preservation & Access Services Center for Colorado Academic Libraries). Retrieved from <http://pascal.ucdenver.edu/about/policies.php>
- Payne, L. (2005). Depositories and repositories: Changing models of library storage in the USA. *Library Management*, 26(1-2), 10-17. <http://dx.doi.org/10.1108/01435120510572815>
- Payne, L. (2007). Library storage facilities and the future of print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Retrieved from <http://www.oclc.org/programs/publications/reports/2007-01>
- The Finnish National Repository Library (NRL). Retrieved from http://www.varastokirjasto.fi/lang_en/
- UKRR (United Kingdom Research Reserve). Retrieved from <https://www.ukrr.ac.uk/>
- WEST (Western Regional Storage Trust). Retrieved from <http://www.cdlib.org/west/>
- WRLC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Retrieved from <http://www.wrlc.org/>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ang, Hye Rhan, & Kim, Jeong A (2012). Use analysis and evaluation of MEDLIS(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 document deliver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233-250.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233>
- Cho, Ok-Soo (2003). Research on establishing a reference model for a cooperative regional library depository: Based on the national universities located in the Daegu and Kyunbuk areas. M.A. thesis,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Hong, Hyun-Jin, Jeong, Jun-Min, Kang, Mi-Hee, & Jeong, Dae-Keun (2003). A study on the optimal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2), 285-318.
- Hwang, Hye-Kyong, Kim, Soon-Young, & Lee, Hye-Jin (2008). A foreign serials overlap study for collabo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9(2), 131-161.
<http://dx.doi.org/10.1633/JIM.2008.39.2.131>
- Kang, Hyen-Min (2006).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and repository library by using of public library cooperative net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29-53.
- Kang, Mi-Hee (2003). A study on the environment of library materials preservation, weeding practice, and the demands of cooperative storage in the Korean library. M.A.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Kang, Mi-Hee (2008). Space saturation and cooperative storage strategies of libraries in Korea—focused on establishment national repository library. *Journal of Modern Social Science*, 12, 67-88.
- Kwack, Dong-Chul, Shim, Kyung, & Yoon, Cheong-Ok (2007). The cooperative storage facilities for academic libraries in other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51-78.
- Kwak, Seung-Jin, Choi, Jae-Hwang, Kim, Jeong-Taek, Park, Ok-Nam, & Kim, Hwan-Min (2013). Developing print journals' cooperativ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337-357.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337>
- Shin, Ji-Yeon, & Kim, You-Seung (201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ased on regional centr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129-150.
- Yoon, Cheong-Ok, Shim, Kyung, & Kwack, Dong-Chul (2007).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 cooperative storage facility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25-51.
- Youn, Eunha, & Chang, Yunkeum (2013). Collaborative print journal management in a digital ag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267-291.

